

● 삼위 일체 대축일

오늘도 소양강의 바람을 맞으며 하늘과 산과 강, 그리고 구름과 나무와 꽃들을 봅니다. 봄이 되어 신록의 푸르름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옛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나 봅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 맑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 그 소리는 온 땅으로, /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네”(시편 19, 2~5)

인간의 과학이 발견한 무수한 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가 가장 아름다운 까닭은 그 안에 온갖 생명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자신의 본 자리를 지키며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박고 수분을 줄기와 잎에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줄기는 잎이 자라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잎은 다시 태양의 에너지를 줄기와 뿌리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로 이 같은 자리 지킴과 하나로 일치될 수 있어야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생명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바다도 산도 하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같이 하느님 현존의 모습을 닮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본 모습을 찾으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일체로 현존하신다고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다고 느끼고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생명은 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으며 살아갑니다. 일체이신 성삼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성령의 친교”(2코린 13, 13)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총과 친교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은총 친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서는 대사제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인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 11)

결국 예수님의 지상 삶의 목표는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간이 다시금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모습처럼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인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 예수님 지상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의 사랑과 은총과 친교를 모든 인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 17)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고 크신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오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되었고 부활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감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친교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느님과의 일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신명나는 신앙 안에서 비로소 참 기쁨과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정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친교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 그 깊은 사랑과 은총과 친교를 전하고 일치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신명 6, 5)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세의 신학자 그레고리오스 성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이해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 즉 그분은 무한하시며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뿐이다.”
배광하 신부<갯세마니 피정의 집 원장>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있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조상들에게 언약하신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친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하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오늘은 성 안토니 다니엘 성당의 행사 관계로 친교 시간이 없습니다.

●온타리오 5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를 해밀톤 본당이 주최합니다. 공소 교우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6월 17일 오후 1시 Shotgun
장소 : Highland Golf Club
참가비 : \$70(식사 및 기념품 포함)
문의 : 윤명원 행사부장 (h) 519-623-2884

● 5월 구역모임안내

- ▶1구역: 24일(토) 저녁 7시 김현덕 형제집
- ▶2구역: 31일(토) 저녁 6시 교육관
- ▶4구역: 23일(금) 저녁 7시 안세영 형제집
- ▶5구역: 24일(토) 저녁 6시 정동근 형제집
- ▶6구역: 24일(토) 저녁 7시 이동기 형제집

● 관리부에서 일립니다.

교육관 관리를 구역별로 한달씩 돌아가며 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에는 1구역이 하고 있으니 각 구역장님들은 이를 구역모임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사용은 관리부에 2주전에 예약하시고 교육관 열쇠는 사용 당일 관리부에 오셔서 사용대장에 서명,인수하시고 반납은 다음 주일 날 성당에서 관리부에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 정리정돈,소등, 그리고 문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할 단체는 사전 예약바랍니다 ***

▶교육관에 필요한 비품과 현금을 기부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차 마감을 5월 31일로 하오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바랍니다. 공소 인터넷 클럽 또는 관리부로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명희 관리부장

(B)519 894 3533 / H) 896 9628/ C) 228 338 0679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주간 전례

▶북미주사제단총회참석관계로 평일미사 없음.

●성모의 밤 행사

5월 30일 성모동산에서 저녁미사와 함께

●젊은이 선택 주말(CHOICE)

일시 : 2008년 6월 6일(금) 저녁 7:00
~6월 8일(일) 저녁 6:00
안내 : 한담성당 (416)447-4078
CONTACT : torontochoice@gmail.com

●은혜의 밤

피정날짜: 6월 11일-13일(수-목:오후 7시-10시)
은혜의 밤: 6월 14일(토)
강사 : 정치우(안드레아) 회장
장소 : 예수 성심 천주교회, 신청비 : \$20
문의 : 허길문(알로이시오)905-279-3719

한 현자에게	
어떤 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주었다.	
가장 어리석은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하고 물어보았더니. 교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해주었다.	
이에 그 까닭을 물어보았더니, 그 현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었다.	
선택하는 것을 보십시오.	
겸손한 이는 내면을 선택하는데, 교만한 이는 겉모습을 선택합니다. 겸손한 이는 깨달음을 선택하는데, 교만한 이는 명예를 선택합니다.	

겸손한 이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교만한 이는 하찮은 것을 선택합니다.	
겸손한 이는 골짜기를 고르므로 풍성한 복이 생기지만, 교만한 이는 산봉우리를 고르므로 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고 위태롭고 흉년이 드는 등의 재앙이 생깁니다.	
겸손한 이는 자신의 사욕을 이길 길을 선택하는데, 교만한 이는 남을 이길 길을 선택합니다..	
.교만한 이가 고르는 것들은 모두 참되지 않고 겸손한 이가 고르는 것들은 모두 참되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미사 전례	
해설	이명희 차주 해설 박명옥

화답송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알렐루야
-------	---

성가	
입당	(81) 영광의 주 성삼위
봉헌	(221) 받아주소서
성체	(174) 사랑의 신비
퇴장	(244) 성모의 성월

독서	
5 월 18일	서원일 서소영
5 월 25일	김직현 김인자
6 월 1일	노동원 노정은

봉헌	
5 월 18일	노재현 노정은
5 월 25일	서원일 서소영
6 월 1일	김직현 김인자

복사	
5 월 18일	수빈 경은
5 월 25일	원영 규환

2008 년 5월 11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40.00
교무금 :	\$ 60.00
Total :	<u>\$ 800.00</u>

2008-20 2008. 5. 18. 삼위 일체 대축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